Kor. Turfgrass Sci., 8(1), 53~59, 1994
최신 기술 정보편

전통 GOLF장 입지 선정에 대하여

趙 成 國
국방부 국립묘지관리사

서 언

골프란 서구인들의 18세기 귀족문화의 산물이며 그들이 자기 체위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즐겨왔던 운동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된다. Golf란 온종일 자연과 벗을 하고 감상하며 더불어 사는 신성한 운동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신성한 자연환경 속에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 경기란 환경속에 사는 우리 현실속에 그리 가깝게만 느낄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골프란 자연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으며 자연의 위대한 품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자연을 경외하고 중시, 보존하며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아가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

자연이 날로 헐벗어 제모습을 잃어가고 각종 폐기물과 오물로 환경이 오염되어 그와 벗을 할 수 없으며 차츰 공해로 찌들어가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점점 찾기 힘들어 가고 자연공간도 또한 맑지 못해 심신의 단련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다면 어찌 바람직한 환경이라 할 수 있으랴. 과학문명과 산업발달의 반비례로 자연이 날로 헐벗어가고 공해와 환경의 오염이 심각해 인간은 자연을 격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 모든 것을 과학으로만 폐해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현상은 자연이 자정능력을 잃어 각종 오염과 공해속에 자연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품속에 사는 인간 역시 공해에 생명을 빼앗기고 황폐한 속에 삶의 자리를 잃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심심산천에 들어가면 세포가 숨을 쉬며 가슴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런 곳을 찾는 것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휴양림이요, 산림욕이며 쾌적한 환경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도심속에서 숨쉴 수 없는 체감을 느끼면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며 만성적 무관심속에 우리의 오감은 그 느낌마저 상실해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경쟁적인 삶이라 느껴지며, 환경이야 어떻든 뒤로 밀어두고,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 여겨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주변 환경과 자연이란 것을 생각해 봄이 좋지 않겠는가? 이 대자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맡기셨을까? 어떤 절대 신인 창조주가 우리에게 이 자연을 맡기셨다면 그 자연을 맡은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원상을 파괴시키지 말고 그를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품속에 사는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을 마구 헐어 원상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한다면 도리어 자연의 노여움을 사 우리 인간을 못 살게 하는 자연적인 위해나 재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때로는 걱정도 해 본다. 산은 푸르러야 하고 물은 맑아야 하며 땅은 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야 생기가 있는 산천이라고 한다.

산이 제대로 푸르지 못하고 대지의 정기인 물이 맑지 못하고 땅이 제 모습을 잃는다면 어찌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원시림이요 자연이라 할 수 있으랴.

본인이 지난 93년 7월 미국 프로리다주 Plam Beach에서 열리는 ITRC(국제잔디연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근 일주일간 세미나를 마치고 Golf장 실제 답사를 하기 위해 Plam Beach부근에 있는 OLD, MARCH 골프장을 견학한 일이 있었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OLD, MARCH 골프장은 TRADITIONS 골프장으로서 미국 남부지방에선 제일 명성이 높은 곳으로 모든 Fair Way 에서 흐르는 물이 골프하우스 앞 중앙 연못으로 모여 들어 취적수를 이루고 물이 나가는 수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며 특히 연못 중앙 정면엔 Club house가 지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골프장 경영이 다른 데에 비해 연중 호황을 누린다고 소개의 말을 들었다. 현지에 도착해 보니 역시 듣던 사실 그대로였다.

낮은 구릉을 이룬 언덕에는 열대수가 빽빽하게 들어 서 있고 작은 구릉과 계곡에선 쉬임없이 흐르는 물이 장류수를 이루고 산 그 자체를 본래의 형질을 변경한 일이 없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자연속에 산과 물 골프장의 주된 방위(향) 또한 모든 조형물들이 나물랄 데 없이 잘 조화성을 이루워져 있어 주인의 말대로 손꼽히는 전통 골프장이었다. 나는 내심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이 동양 철학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멋진 정통 골프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 뿌리깊게 깔려있는 전통입지 선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상식조차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나름대로 골프장을 세밀히 다니며 조사하고 검토해 보았다.

역시 그들은 가문을 지키는 분들로 18세기 말엽부터 5대째 이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설계방법은 스코트랜드 전통 입지 사상을 본따 나름대로 습지를 이용, 물과 수경을 최대한으로 살린 곳으로 판단되었다. 오래 전통과 인습속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남의 것을 모방하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우리의 전통사상을 살려 특징있는 한국적인 골프장을 건설해 봤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만 전통골프장이란 것을 말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겠지만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관리 개선하는 분들에게 일조의 참고 자료가 될까 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전통 골프장이란 먼저 산의 정기를 훼손없이 잘 살리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은 클럽하우스 전면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Club house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솟은 봉은 아름다운 첨경물이 되어야 하며 모든 물의 흐름은 홀의 중심부 Club house를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지나가 마지막 소수(消水)처는 보이지 않아야 하며, Club house의 터잡기는 마지막 수구를 보고 향을 정하여야 한다.

전통 골프장 입지선정 요건은

1. 골프장 후면의 산은 높고 아름다우며 골프장 전체를 양팔을 벌려 감싸안은 것 같아야 한다. 가장 높은 주산은 가까운 주 산보다 아름답고 대표성을 지닌 의젓한 산으로 그 산맥의 흐름이 좌우로 갈라져서 골프장 전체를 포근히 감싸주는 온화한 산이어야 한다. 산맥 좌우의 흐름은 둥글게 솟구쳤다 멈추고 멈춰섰다 솟구침이 주된 봉우리로부터 차츰차츰 낮게 내려와 완만한 구릉을 옆으로 펼치면서 클럽하우스와 전체 홀을 감싸 보호하듯 완만한 경사지를 만들고 마지막 뻗은 맥은 서로 닿듯 다정한 모습으로 내려와 감싸주어 전체의 산이 생기가 넘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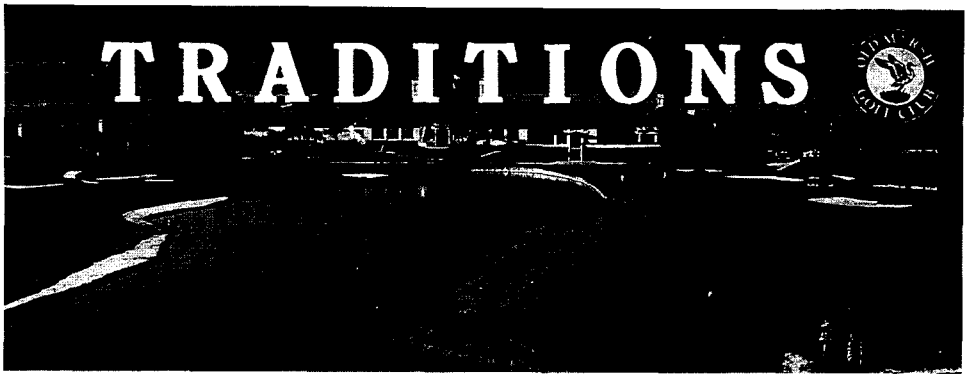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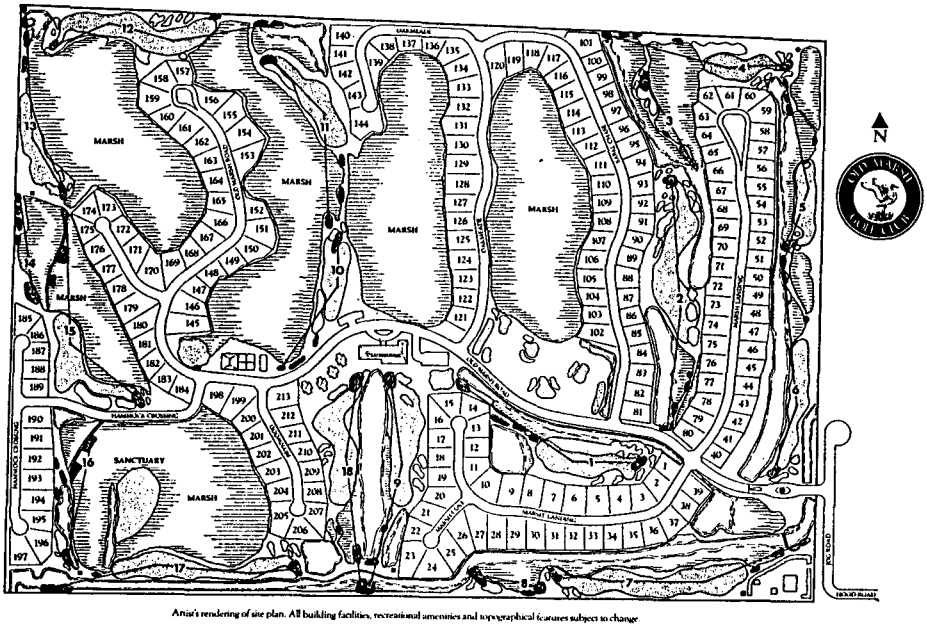


Fig. 1.

2. 물은 각 홀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보이지 않게 흘러가야 한다. 주된 봉우리로부터 좌우로 뻗은 작은 맥의 곁으로 수원을 만들면서 내려와 능선과 구릉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완만하게 소리없이 흘러 맨나중 마지막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 큰 못이나 호수를 만들거나 큰 내나, 강 또는 바다로 유입된다면 좋은 입지라고 할 것이다. 큰 못이나 호수와 바다는 다같이 전체가 들여다 보이는 것보다 약 삼분의 일정도나 일부분만이 Club house 에서 보이면 가장 좋은 취적수로 알려져 있다.
3. 주변의 솟은 첨경물이 아름다와야, 주된 봉을 중심으로 솟은 봉우리들의 솟구침이 주봉보



Artist's rendering of site plan. All building facilities, recreational amenities and topographical features subject to change

Fig. 2.

다 높지 말아야 하며 멈춰섰다 솟구침이 차츰차츰 낮게 내려와야 기를 거슬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며 그 솟은 봉의 모양이 둥글거나(금), 뾰족하거나(화), 평평하거나(토), 물굽이침 같거나(수), 우뚝 치솟거나(목), 어떠한 형태든 여기 저기 무작위로 흩어 놓은 것 같으면서도 주된 봉우리와 Club house를 외면하거나 배반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서쪽 방위에 둥근 봉우리가 두서너개 아름답게 솟아 있으면 재화를 뜻한다고 하니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첨경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방향은 남쪽, 동쪽, 동남쪽, 서남쪽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북쪽의 산은 높고 웅장해야 서북풍 찬바람을 막을 수 있으며 광의 따스함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홀을 양팔을 벌린듯 감싸주면 일조시간이 길어 태양의 따스한 양광을 언제나 받을 수 있으며 빛은 모든 동식물의 생성의 원인소이며 빛을 찾아 생활하는 것이 또한 동식물로 우리 인간도 누구나 이 방향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5. 경사도는 20° 이하이어야 한다.
   경사는 구배가 20°가 넘으면 급경사지로 아무리 폭이 넓다 해도 바람직한 홀을 만들 수 없으며 첨단기술을 발휘한 홀이라도 성토지역은 절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좁은 Fair Way를 넓히기 위해 주변 소구릉에 솟은 봉을 송두리째 굴삭하여 없애는 것은 조물주가 만든 경관을 없애는 것으로 보화덩어리를 캐 없애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필자가 다녀본 골프장 중 거의 90%가 소구릉 소봉을 건드리고 파서 훼손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자연은 생긴 그대로 제자리에 놓아 두고 다듬고 가꾸어 미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6. 골프장의 표고는 해발 100m 이하의 곳이어야 한다.
   홀의 면적이 여유롭지 못해 산을 마구 헐어 Fair Way를 만들 경우 자연의 특징적인 기를 없애버리고 넓은 공간의 이용만 생각한 것이 되고 만다.
   예를 들면 잘 생긴 얼굴에 정형수술을 한다고 코를 없앤 경우와 무엇이 다르리요. 소구릉에 소봉을 살리고 아래로 옆으로 돌아가며 홀을 만들고 빙돌아 높은 위치에 자리잡는 홀의 표고는 100m를 초과해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가장 높은 홀의 Tee나 Green에선 전체 홀이 한 눈에 들어와 볼 수 있어야 좋으며 원경이 아름다와 조망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높고 낮은 봉과 시원한 바다, 큰 연못이나 호수가 앞에 보여 시원한 파노라마를 이룬 공간미가 있어야 한다.
7. 각 Tee와 Green에선 관망할 대상물이 앞에 있어야 한다.
   Tee 지점에선 원경이 아름다와야, Green 에선 빙둘러 쌓인 호수가 있어 제한된 그린에서의 타구의 실수와 성공의 아슬아슬한 묘미를 맛보고 즐기며, 빙둘러 쌓여진 수경이 제법 일품이라야 하겠다.
   멀면 먼대로 가까우면 가까운대로 음미할 관망의 미가 있어야 겠다.
   어떤 곳은 연못은 좋다고 하니까 급경사지에 인공 연못을 설치해 오히려 미적 가치를 삭감해 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곳도 있었다.
   모든 것은 있는 자연형상을 약간 더 넓히고 다소 깊게 다듬는 것은 바람직하나 부적합지에 조형은 금물이라고 생각된다. 산의 솟음이 빼어나 음미할 가치가 있는 대상물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호수와 바다의 탁 트인 조망미, 수평선의 아름다운 공간의 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8. Culb house의 위치는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라야, 뒷산의 주봉 옆으로 병풍치듯 둘러쌓여 있는 산이 가깝고도 멀리 감싸 보호하고 있어야 하며, 앞은 탁 트인 초원 저 멀리 호수가 보

이고 첩경의 봉들이 야트막하게 보여 조망할 원경의 경관이 반듯하게 있어야 한다.
야트막한 산의 맥이 앞으로 중첩해 있으며 그 기가 連線하다고 하며 멀리 바다나 호수가 중첩해 보이면 재화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9. 진입로의 동선계획은 九曲路로 마지막 지점에선 Club house와 홀의 전망이 한 눈에 들어와 환성을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자연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야 한다.
골프장이 보일듯 안보일듯 동경의 세계를 찾는 기분으로 설계된다면 또는, 어느 능선에 通關門의 터널을 조성해 眺望의 미를 불러 일으킨다면, 동선계획은 잘 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통관문까지는 上向路이어야 하고 통관문 이후는 하향로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은 喬木을, 下向路 주변엔 관목이나 화목류로 배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Fig. 3.

10. 물의 처리기법
골프장을 건설하다 보면 각 홀의 배치가 Club house 에서 전체로 다 보일 수는 없다. 적어도 바람직한 골프장이라면 홀의 3/4이나 1/2이상의 홀이 보여야 하고 또 보여지는 홀에서 흐르는 물은 전부 한 곳으로 모여 흘러가야 바람직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물까지도 물의

최종수구는 동일한 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야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골프장의 홀의 배치가 동서나 남북으로 陵線을 경계로 배치되었다면 마지막 수구는 각기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다른 수구로 흘러감이 동일수구로 흘러나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모든 물이 한 군데로 모여 호수를 이루어 흘러나가면 재화가 쌓이는 聚積水라 일컬어지고 있다.

11. 생활용수의 하수처리

埋暗渠를 설치 종말 정화 처리되어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바로 대지의 정기인 물이다.

무분별하게 버리는 생활 용수로 깨끗한 물이 썩어가고 각종 오염과 폐기물의 濫棄로 생물이 살 수 없다면 그 자연은 우리 인간을 보고 무어라 하겠는가.

自淨能力을 상실한 자연은 손과 발이 없다. 찢어진 옷을 옷 자신이 기울 수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자연을 훼손한 자가 책임지고 자연을 되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敬畏할 줄 알고 보호할 자질을 가진 자가 골프장을 건설할 자격을 갖춘 자라고 보여진다. 이렇듯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천과 환경을 보살피는 자만이 자연이 말없이 주는 福을 받는 것은 자연 이법이요, 理順得利의 철리라고 보아진다.

결 론

산이 주종을 이룬 편협한 국토를 가진 것이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이요 삶의 터전이다. 전통골프장이란 자연을 원형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며 자연을 잘 보전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연을 다듬고 가꾸고 모양을 살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설하여 모든 사람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대체로 간추려 본 입지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된 산의 모양은 의젓한 아름다움이 있은 다음 양쪽 산맥을 활짝 펼쳐 그 맥의 흐름이 솟고 멈춤이 분명하여야 하며 어떤 때는 크게 뭉치고 어떤 때는 작게도 뭉쳐 구불구불 S자 모양, 아니면 Z자 모양으로 산이 내려오고 넓게 펼친 구릉 경사지가 기를 머금은 것 같고 양쪽 맥은 좌우로 겹겹이 안으로 감싸주고 앞쪽 멀리엔 야트막한 산이 활모양으로 굽어 있으며 물은 전체홀을 감싸 안은듯 빙돌아 흘러나가고 전후좌우 사방팔방으로 어떤 맥이나 물의 흐름이 Club house를 배반함이 없어야 하고, 홀의 중앙에 사방을 보면 살아 생기가 넘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골프장은 정기 어린 아름다운 산, 깨끗한 푸른 물을 소재로 인간이 꾸미는 예술작품이요, 심신을 단련하는 레크레이션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또, 내와 연못을 주변경관에 어우러지게 북돋아 조화성을 살려준다면 아니, 홀 마지막 Green의 끝맺음 지역에 넓은 바다나 호수가 얼굴을 내밀고 파도가 춤추듯 손짓을 한다면 그 얼마나 싱그러운 햇살아래 자연이 손짓하는 낭만이랴? 자연의 돌과 때론 벗을 하며 푸른솔 길게 뻗은 가지 밑에 편히 쉬는 멋, 푸른 잔디 위에 샷을 날려 백구를 높게 띄우는 골퍼, 한국적인 전통과 맥이 숨쉬는 참된 미를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것을 알고 즐기는 전통골프가 아니겠는가. 골프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주변에 둥근 산이 많아야 하고,

둘째, 고여서 넘치는 호수나 연못 또는 바다가 보여야 하며, 흐르는 물은 전체 홀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마지막 물 나가는 것을 보고 Club house를 지을 것이며,

넷째, 모든 산과 봉우리가 홀의 중앙 Club house를 보고 다정하게 감싸 주어야 복록이 연면하리라고 생각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 들은 요건에 하나라도 반하는 것이 있다면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